

광주문학관 건립, 시·문학단체 추진체 구성해야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관 건립문제 어떻게...' 특별 좌담회 "건립 장소 문화전당·양림동 연계 '옛 광주KBS 부지' 적합"

(가칭)광주문학관(이하 문학관) 건립을 위한 광주시와 문학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문학관은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양림동 문화역사마을과 연계 가능한 구 도심 인근이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구 광주KBS 부지가 접근성, 공간 활용 면에서 용이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문인협회(회장 임원식·이하 문인협회)가 7일 서구 농성동 문학발전소 회의실에서 주최한 '광주문학관 건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특별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문인협회가 예향 광주의 문학정신과 광주정신을 계승할 '광주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좌담회에서는 향후 문학관의 방향성, 건립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특별좌담회는 지난 2013년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으로 문학관 건립이 백지화 된 이후, 문인협회 차원에서 문단 원로를 비롯해 다양한 문학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좌담회에는 문인, 학계, 언론, 광주시와 각 문학단체(광주문협, 민중작가회, 시인협회, 시조협회,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손광은·박형철·전원범·김종·강만·강경호 시인, 소설가 문순태, 백수인 조선대 교수와 노남진 문인협회 부회장, 박준수 광주매일 상무, 고선주 광남일보 기자, 박성천 광주일보 기자 등이 참석했다(최문구 광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임원식 문인협회 회장은 "20여년 간 문

학관 벽돌 한 장 올리지 못한 것은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무관심도 큰 원인이지만 대상 주제인 문인들의 비적극적인 태도도 한몫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학관 건립을 위한 문인들의 의견이 결집돼야 한다"고 좌담회 개최 의미를 강조했다.

손광은 시인(전남대 명예교수)은 "문학관은 문화수도에 걸맞는 명칭과 장소가 되어야 한다. 로마가 트레비상을 열었던 것은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가 진정한 문화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학관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문학관은 광주를 '아시아의 피렌체'로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 공간"이라고 역설했다.

김종 시인은 "문학관 건립 표류는 지자체의 문제이자 문학인의 문제"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이 좋은 기회이

기 때문에 각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학관 건립은 결국 시의 의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인들의 통일된 의견을 시에 전달해 이번만큼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 문인협회 회장인 강만 시인은 "문학관은 결국 광주시의 재산이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므로 의견 수렴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시인은 건축과 부지 선정 등은 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시가 주체가 되는 위원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시의회의와의 협조를 주문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노남진 문인협회 부회장은 문학관 건립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문학단체와 학계 언론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학관 건립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대구시, 대전시, 전북도 등이다. 이와 아울러 탄핵 정국 이후 대선 정국이 가시화되면, 대선 주자의 공약집에 문학

관 건립이 수록될 수 있도록 문학단체 차원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시인인 백수인 조선대 교수는 "추진체에는 반드시 시가 들어와야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문학관은 시민과 국민 나아가 아시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호 시인은 문인협회와 작가회의와의 단일화된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소위원회 등을 만들어 콘텐츠 구성과 문학관 성격 등에 관한 논의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문구 광주시문화예술과장은 "광주는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가운데 문학은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며 "향후 문학계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해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문학관 건립을 위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인협회는 7일 서구 농성동 문학발전소에서 문학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문학관 건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문인협회 제공>

문화재기술자 손동선 '다시 찾고 싶은 우리 문화 유적' 펴내

"운주사의 석탑들은 자연석 기반을 사용한 것이 많다. 그리고 특이한 장식무늬, 원반형이나 투구리 같은 옥개석의 석탑은 물론, 판석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옥개석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정형을 깬 파격적인 석탑들은 단소미와 친근함이 우습게 느껴진다. 그리고 토속적인 해학미는 기존의 불교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 문화재에 관한 일을 바탕으로 얻은 경험을 갈무리한 책이 나왔다. 주인공은 문화재기술자이자 현재 문화

재수리기술자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손동선 씨. 그가 이번에 펴낸 '다시 찾고 싶은 우리 문화 유적'(시와사람)은 문화재와 관련된 일 때문에 자주 찾았던 사찰이나 사적지 등 주요 유적지를 소재로 한다. 책에 수록된 글은 '관광저널'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이다.

저자는 "글을 쓰기 위해 유적지를 찾아가는 길은 참으로 즐거웠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거기서 얻어낸 소중한 것들을 글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책에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전국의 유적지들이 망라돼 있다. 백제문화의 진수 공주의 무령왕릉, 선방스님들의 수도처 문경 봉암사, 한국 선종의 성지 하동 삼신산 쌍계사, 조선 개국의 성지 남해 금산보리암, 제주 숨결이 배어 있는 제주 관덕정과 관아, 민초들의 염원이 깃든 화순 운주사 등 20곳의 문화 유적지가 소개



돼 있다.

손 동선은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역지로 만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에 대해 매료되었다"며 "처음부터 그대로인 것들, 현대문명에 의해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선인들의 혼과 숨결이 느껴진 옛것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에 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 출신인 저자는 현재 다보종합건설을 경영하고 있으며 목포대에 출강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신지식인협회 인증을 받기도 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전현의 문화카레

요즘 총무로에서 '잘나가는' 조 정래(45)영화감독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중앙대 영화학과 출신이지만 한때 촬영장보다는 판소리 무대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다. 지난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를 보고 고수(高手)의 길로 들어선 게 계기가 됐다. 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예능 보유자 고 성우 향 명창과 무형문화재 고법 보유자인 정철호 선생이 그의 스승이다.

지난 2002년 조 감독은 평소처럼 판소리 봉사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을 찾았다. 하지만 이 곳에서 생활하는 강일출 할머니가 심리치료

정'이었다.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주인공은 '귀향'. 비록 제작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역에서 크라우드펀딩의 힘을 처음 보여준 건 5월항쟁을 다룬 영화 '26년'이다. 지난 2012년 유명웹툰작가 강봉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크랭크 인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있다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살아나 295만 여 명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근래 문화예술계의 크라우드펀

'쌈짓돈의 기적'을 믿어요

중에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로 돌아온 조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큰손'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안부를 소재로 한 그의 시나리오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막대한 사정'을 전해 들은 주변의 지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건네 간신히 촬영에 들어갔지만 금방 돈이 바닥나 중단해야만 했다.

조 감독의 애를 태우던 제작비는 뜻밖의 '스폰서'를 만나 해결됐다. 밀저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대중의 소액기부로 기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시도했는데 국내외에서 7만 5000여명이 후원금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총 제작비 60억 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당초 목표인 오는 5월 스크린에 걸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임을 위한...'이 '귀향' '26년'의 뒤를 잇는 '쌈짓돈'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강습 수강생 모집

전남도립국악단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2017년 제1기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강습 수강생을 모집한다. 판소리, 남도민요, 장고, 한국무용, 대금 등 5개 반으로 운영되는 강습은 전남도립국악단의 실력 있는 단원들이 강사로 나선다. 강습은 오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4시~7시) 진행하며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다. 수강료는 3개월에 6만원이며 남도회원은 1만원 할인(본인), 풍류회원은 2만원 할인(본인 포함 2인) 혜택이 있다. 국악 강좌는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됐으며 지난해에는 460여명이 참여했다.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HANNEL A 매주 금요일 밤11시

이수근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